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 개국 파트너십

각료 회의

시드니, 2006. 1 월 11 일-12 일

공동 선언문

우리는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 개국 파트너십'을 위한 제 1 차 각료회의를 2006 년 1 월 11 일부터 12 일까지 시드니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는 2005 년 7 월 28 일 비엔티엔에서 발표된 비전성명 이행을 위한 기반이 되는 헌장을 채택하였다. 이 비전성명의 핵심은 개발과 빈곤 근절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는 회원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수요증가 문제 및 대기오염,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집약도 등의 도전과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향후 수십 년간 대규모 투자를 요할 것이다. 우리는 재생에너지와 핵 발전이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화석 연료가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현 세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정저 배출기술의 개발, 시연 및 사용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하면서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경제적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집약도 감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유망한 기술의 사용을 공동으로 촉구하였다.

에너지 안보도 또 다른 주요 관심사이다. 가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청정에너지로의 접근은 경제개발과 향상된 생활수준의 기반이 되고 에너지안보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화석연료로부터의 발생하는 온실가스 집약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 안보상의 중요한 이익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는 기후변화를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를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동 파트너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우리의 노력에 부합하고 그에 기여할 것이며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나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회원국이 청정개발 및 기후와 관련하여 이행하는 광범위한 국가별 사업과 프로젝트를 검토하였다. 각 회원국은 파트너십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각국의 정부는 파트너십 사업과 활동에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였다. 우리는 민간 부문이 이러한 노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민간과 공공부문으로부터 금전적, 인적 및 기타 자원을 조성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정 저배출 기술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 투자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민간분야, 연구기관 및 정부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파트너십 작업계획을 작성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부, 민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모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작업장 안전이나 기술과 같이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는 관련 사항에 대한 경험을 교환할 것이다.

파트너십 작업 계획은 전력발전 및 주요 경제산업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아래의 분야와 관련하여 8 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하였다: 청정화석연료,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발전, 발전 및 송전,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석탄채광, 건물 및 가전기기.

우리는 규모는 증가하고 비용은 저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여러 기술이 개발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게 실무그룹을 지도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실무그룹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소관 분야에 있어 청정개발과 기후 관련 현황에 대한 검토
- 효율성 개선에 관한 지식, 경험 및 우수사례를 공유
- 적합하고 관련 있는 기존 및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구상
-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기회와 야심차면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명시하는 행동계획의 개발

동 파트너십 작업계획은 역동적이며 실무그룹의 작업이 진전됨에 따라 보완되고 발전 될 것이다.

당초 동 파트너십은 몇 가지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비전성명은 우리의 파트너십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협력을 요하게 될 운송 등 여러 관련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교환과 같이 청정개발 및 기후와 관련된 작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기존의 실무그룹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방면에 걸친 기회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에너지 진단 사업과 후속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아·태 기술 협력 센터' 설치에 관한 제안을 공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회의가 다른 관심분야 및 다방면에 걸친 문제를 다루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전략의 개발 및 이행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장이 되기를 바란다.

동 파트너십은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및 대기오염과 관련된 심각하고 장기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의 참여를 도모한다. 우리는 상호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인 청정개발 및 기후문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